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80원 하락한 1,428.50원에 마감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2.80원 하락한 1,428.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20원 상승한 1,431.50원에 개장했다. 미 CPI가 전년동기 대비 8.2% 올라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우려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저점 매수세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위안화 강세 및 국내 증시 반등 등 영향 탓에 차츰 낙폭을 확대했다. 1,420원대 중반에서는 결제 수요가 수급상 우위를 점하며 낙폭을 제한한 영향을 받아 1,428.5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9.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68.1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431.50	1434.20	1425.00	1428.50	1428.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0.94	973.03	961.88	962.8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98.95	1400.67	1386.64	1388.3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	-2.72	-10.95	-24.52
결제환율(수입)	0.02	-1.91	-9.82	-22.5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증시 급반락...연고점(1,442원) 위협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28.50) 대비 13.00원 급등한 1,441.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여전한 물가 우려에 따른 뉴욕 증시 급반락과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예상보다 높은 미 9월 CPI에도 불구하고 깜짝 급반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급반락했다. 미시간대가 조사한 10월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5.1%로 지난 9월 4.7% 보다 상승했다는 소식 등에 가파른 하락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

려가 되살아나면서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달러-엔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의 완화정책 지속 발언으로 149엔선 부근까지 상승한 점도 금일 원화에 동반 약세를 가하며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 미세조정 경계 및 실개입 경계는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7.00 ~ 1448.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618.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00원↑
	■ 美 다우지수 : 29634.83, -403.89p(-1.3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1.0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64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